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시50:5, 롬1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제 목 서울노회유지재단 문제 관련 전국교회 교인 서명운동 전개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교단 총회는 영등포노회 은성교회 건축 부도 사태로부터 야기된 (주)선우측의 지료청구소송 판결에 대하여 서울노회 유지재단이사회가 대법원에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제 104회기부터 현재까지 총회 결의로 총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간 법적 대응과 합의 도출을 위해 총회 차원의 대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청구이의 소송과 별도로 (주) 선우측이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 서울노회, 서울서노회 소속 12개 교회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문제 수습과 대책을 진행해 오던 중, 최근에 새로운 방식으로 총회 산하 5개 노회 소속 5개 교회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선우의 강제경매 신청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청구이의 소송(대법원2019다302985)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므로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 소속 전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 서명운동을 **5월 말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교회 교인 탄원 서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귀 노회 소속 교회에 안내문과 서명지를 송부, 안내해 주셔서 본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을 받은 서명지는 교회에서 총회로 직접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지 제출처 : 총회 행정·재무처(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5층/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붙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9,421개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교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총 회 장 이 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 월



대리 구미화 실장 유수정 총무 안영민 사무총장 김보현

시행 행정·재무처-2820 (2023.3.9.)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5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16)

전송 02-6008-2982

/ kmhsky@pcknet.org

/www.pck.or.kr

/공개